

# POLICY BRIEF 2021

2021. 12. 17. vol.51

## 2021 정책브리프

※ 이 자료는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www.jthink.kr](http://www.jthink.kr)

연구진 | 오병록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배진아 지역개발연구부 전문연구원

# POLICY BRIEF 2021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2021. 12. 17. vol.51

## CONTENTS

- I.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필요성
- II.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현황
- III.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 1.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 2. 공공행정 지원 강화
  -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 ([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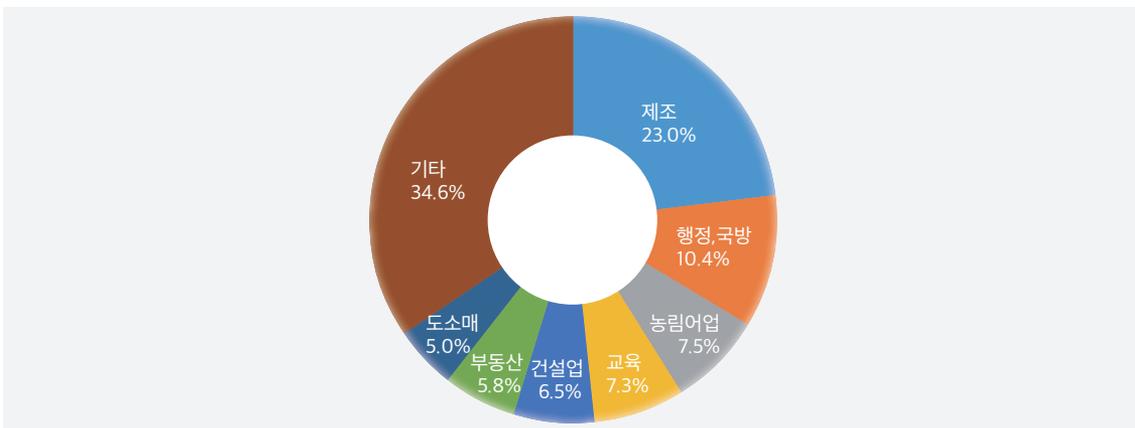
---

## I.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필요성

-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고, 정부정책도 첨단산업 및 기후·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건설산업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음
- ✔ 그러나, 건설산업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건설투자가 전체 GRDP의 14.5%(2019)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서 생산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추산업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음
- ✔ 건설산업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건설물량이 정체되면서 건설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 최근에는 새만금 지역이 속도감 있게 개발되면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전북에는 지역건설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6천억 원 이상의 1등급 건설업체는 없고 중소기업 영세업체가 많아 취약한 건설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 전라북도 지역건설의 성장에 한계를 가짐
- ✔ 따라서, 전라북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함

## II.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현황

- ✔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중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21개 항목 중 5번째로 높음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전라북도-소득 및 지출-경제활동별 도내 총생산(당해년가격)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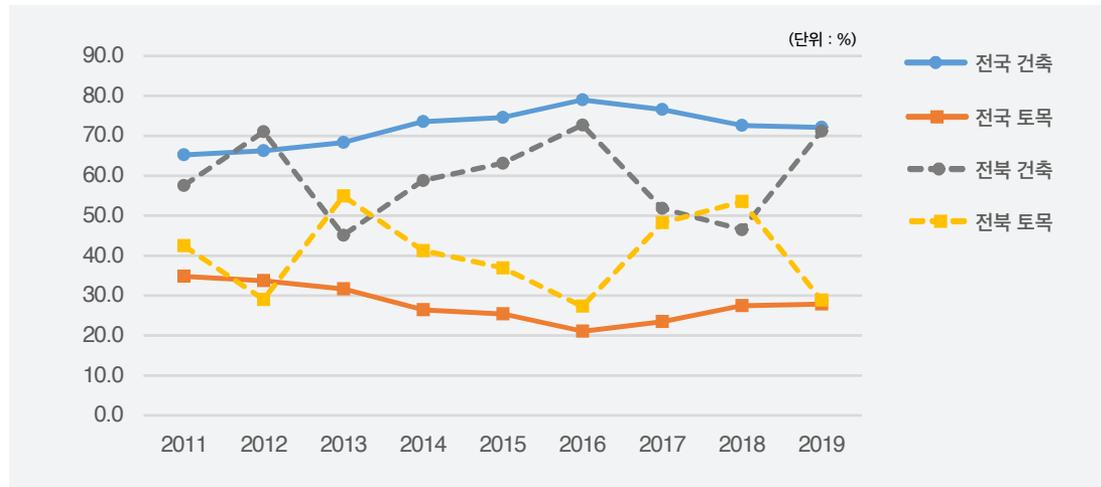
- 2019년 건설공사액 기준으로 특정 지역의 공사에서 당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의 전국적인 비율을 보면 42.5%이지만, 전북지역 내 공사에서 본사를 전북에 두고 있는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은 55.7%로서 전국 평균에 비해 13.2%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북 도내 건설업체는 전북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단위:10억원, %, %p)

지역	2018년			2019년			비율증감 ('19~'18)
	국내 공사액(A)	본사 소재지 공사액(B)	비율 (B/A)	국내 공사액(A')	본사 소재지 공사액(B')	비율 (B'/A')	
전국	258,853	107,017	41.3	264,665	112,359	42.5	1.2
전북	8,702	4,626	53.2	9,186	5,114	55.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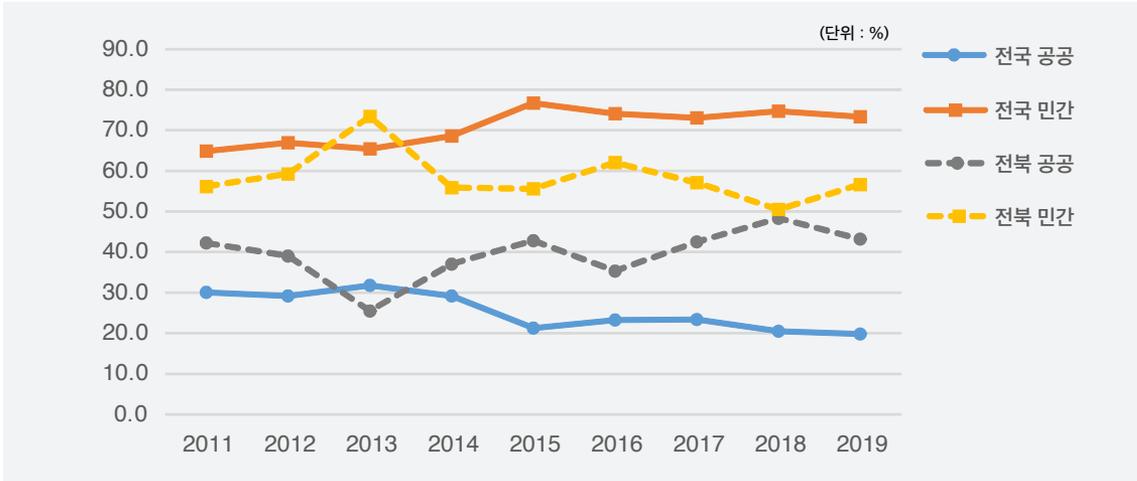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

- 전국 평균 건축공종 건설수주액 비율이 72.7%이고 토목공종은 27.3%이지만, 전라북도의 건축공종 건설수주액 비율은 58.4%이고 토목공종은 41.6%로 분석되어, 전라북도는 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토목공종 건설공사 비중이 높음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공사지역 공종별 건설수주액(경상)

- 발주기관별로 보면, 전국의 공공발주 건설수주액은 전체 건설수주액의 24.4%이고 민간발주 건설수주액은 71.7%인 반면, 전라북도의 공공발주 건설수주액 비율은 40.1%이고 민간발주 건설수주액은 58.2%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에 비해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수주액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공사지역 발주자별 건설수주액(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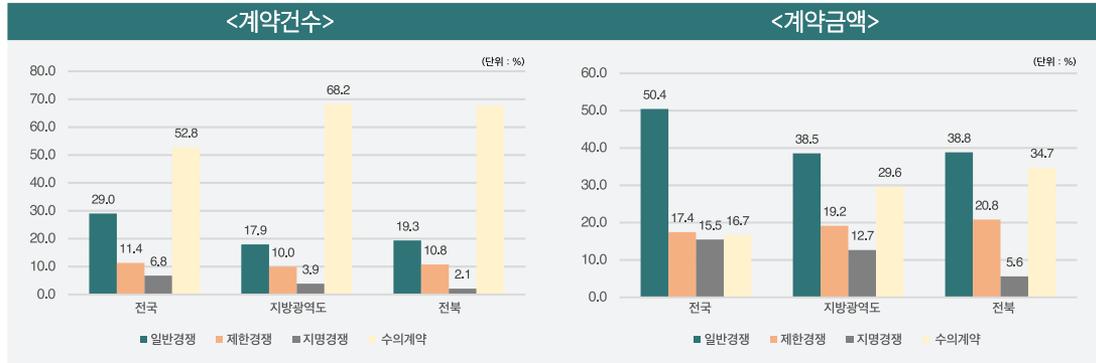
- ✔ 일반경쟁방식의 건설공사 실적에서는 민간발주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76.8%인 반면 전라북도 건설업체는 46.8%에 그치고, 제한경쟁방식의 건설공사 실적에서는 전국적인 민간발주와 지자체발주 건설공사 실적이 각각 29.7%, 26.3%이지만 전라북도 건설업체는 지자체발주 건설공사 실적이 42.9%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북의 건설업체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제한경쟁 건설공사 실적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본사소재지별 계약방법별 발주기관별 공사종류별 기성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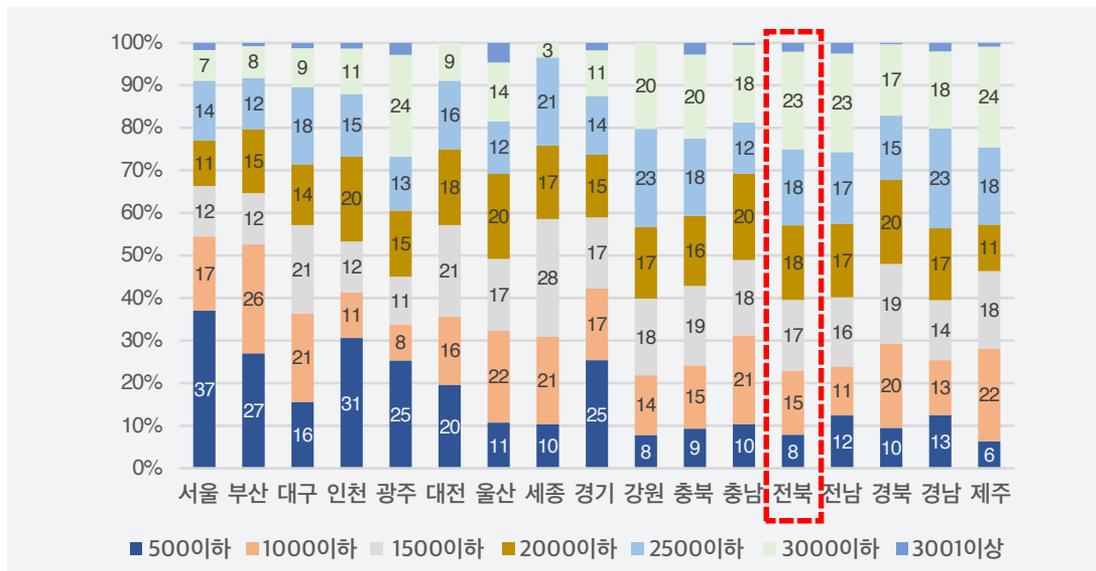
- ✔ 전라북도 입찰형태별 기성실적 계약건수는 수의계약의 비중이 67.7%로서 지방 광역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금액에서는 34.7%로서 전국 또는 지방광역도에 비해 수의계약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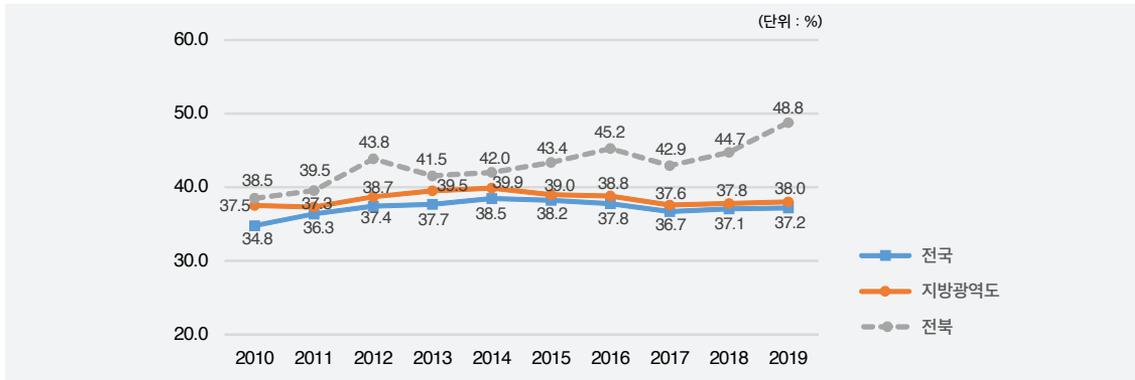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전문건설업-기성실적-시도별 입찰형태 및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 전북의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0위 내의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고 500위 내의 업체는 8%에 그치고 있는 반면, 2500위~3000위에 해당하는 업체가 23%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영세한 건설업체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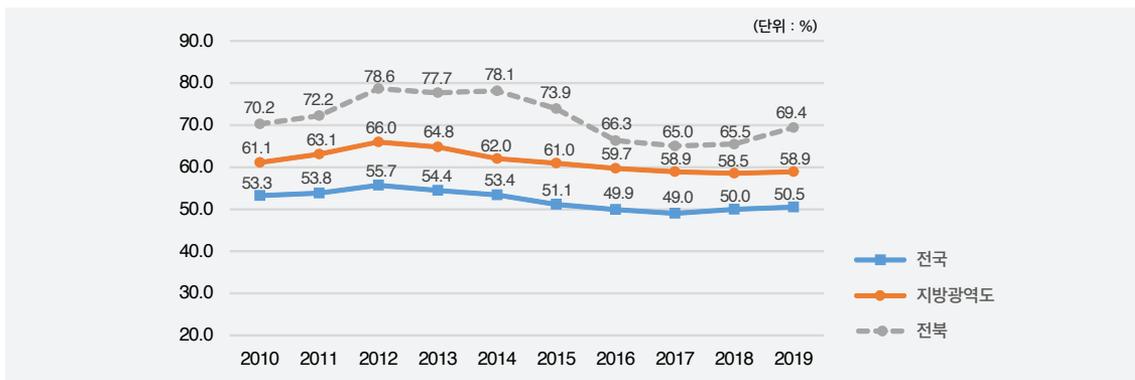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2020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각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한 비율이 전북은 2019년 기준으로 48.8%로서 전국 평균 37.2%와 지방광역도 평균 38.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북의 역내에서 발주한 공사를 전북 업체가 공사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자료.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종합건설업조사 기성실적. 각 년도

- ✓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북도내 건설업체가 수행한 건설공사 중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성실적의 비율이 69.4%로서 전국 평균인 50.5%와 지방광역시도 평균인 58.9%보다 각각 18.9%p, 10.5%p 높게 나타남
- ✓ 이는 전북 건설업체 전국 평균이나 지방광역시도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타지역보다는 전북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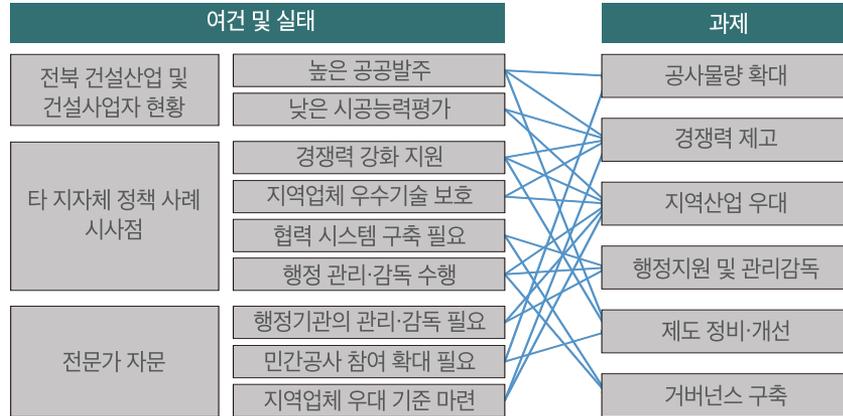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종합건설업조사 기성실적. 각 년도

### Ⅲ.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 ✓ 전라북도 건설산업의 실태분석과 타 지자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검토,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행정 지원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을 설정함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 ✔ 활성화 전략에 따른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물량 확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고, 공공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대, 행정 지원 및 관리감독,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 정비 및 개선, 거버넌스 구축으로 제안함

전략	과제	방안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공사물량 확대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 민간공사 확대 유도 및 지원
	경쟁력 제고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중소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역건설 활성화 우수업체 포상
공공행정 지원 강화	지역업체 우대	지역건설업체 참여 건설공사 인센티브 제공 사업승인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단축 지역특화사업 지역건설업체 우대 지역 발주 공사 참여 제한
	행정 지원 및 관리감독	지역 우수 건설업체 홍보 및 민관 합동세일즈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 및 퇴출 하도급 계약 및 건설현장 관리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제도 정비 개선	지역건설산업 확대 및 지역업체 소재지 기간 제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구축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홍보 건설공사 부실방지 관련 조례 제정
	거버넌스 구축	건설관련 유관부서 협업 도내 건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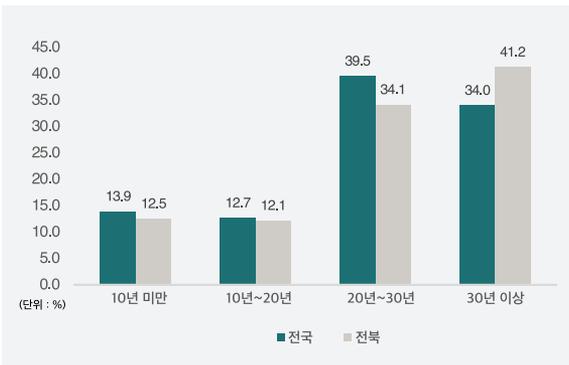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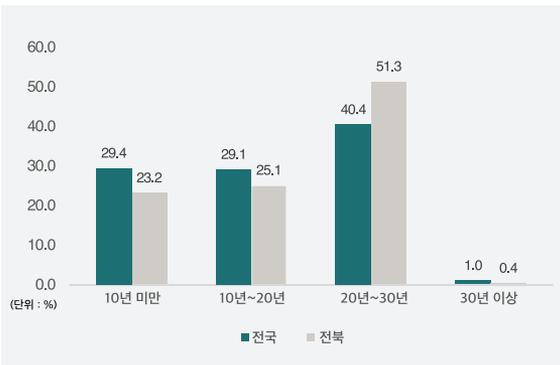
## 1.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은 공공발주 공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전북은 여전히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공공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도로개설이나 노후 도로시설물 정비, 주민이용시설 건립 등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인 재정투자로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공사물량을 확대하여야 함

구분		합계	10년 미만	10~14년	15~19년	20~20년	30년 이상	
1종 시설물	소계	47	8	7	24	6	2	
	도로교량	44	8	6	23	5	2	
	도로터널	3	-	1	1	1	0	
2종 시설물	소계	250	48	40	52	76	34	
	도로교량	217	35	32	47	70	33	
	도로터널	33	13	8	5	6	1	
특정 관리 대상	도로 시설	소계	753	6	47	139	343	218
		교량	705	5	45	121	326	208
		터널	11	1	1	6	1	2
		육교	37	-	1	12	16	8
		지하차도	-	-	-	-	-	-
합계		1,050	62	94	215	425	254	
비중(%)		100%	5.9%	9.0%	20.5%	40.5%	24.2%	

자료: 박용석 외, 2018, 176쪽 재인용

-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많으므로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건설 및 주택정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전북에서의 건설공사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민간발주 공사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과 함께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단위로 주거환경개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총조사 주택의 종류 및 건축연도별 주택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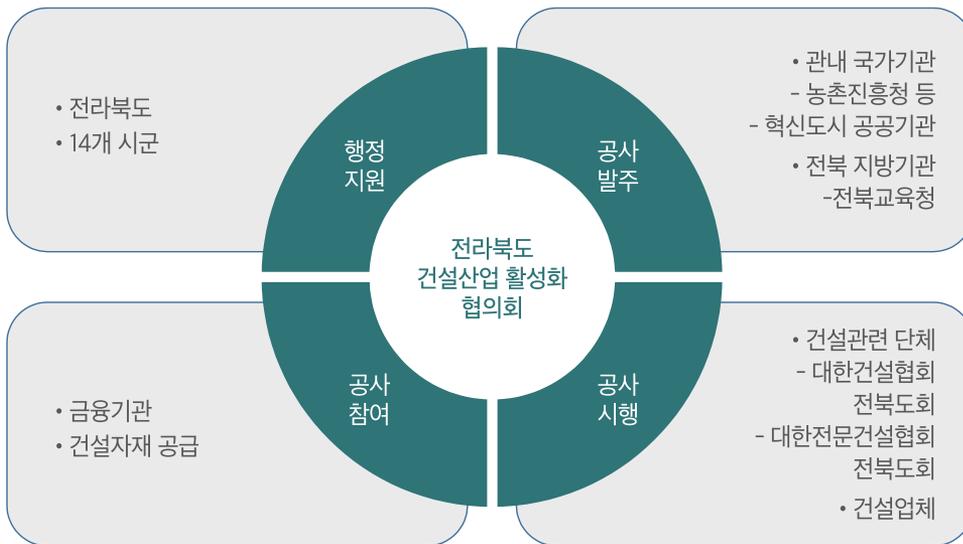
- ✓ 전북도내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특화 맞춤형 인력양성 기반을 갖춰 청년들의 우수한 건설 인 배출을 유도하고, 건설업체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지원함
- ✓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체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 인력자원의 확보와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우수기술을 보호하면서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 전북 지역건설업체의 대외적 홍보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산업체'와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인' 포상을 정례화하고, 선정된 업체는 건설업무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설기술 명장제'를 도입하여 기술발전을 유도함

## 2. 공공행정 지원 강화

- ✓ 도내 주택건설사업에 전북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활성화 우수업체로 포상 받은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여 지역건설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함
- ✓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및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의 우선적 처리를 지원함
- ✓ '친환경·생태', '첨단', '그린에너지', '농업·관광 등 특화산업', '수변도시' 등을 키워드로 개발되는 새만금지역 건설공사에 관련 분야 건설능력을 보유한 전북지역건설업체 참여와 전북 건자재 사용의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
- ✓ 전북지역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조건으로서 건설업체소재지를 전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한을 제한하여 지역발주 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우대하도록 함
- ✓ 도민들에게 우수한 지역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여 인지도를 제고시켜 도내 민간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전북건설업체의 우수성 제고를 통한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세일즈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 부실 및 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실업체에 대한 감시활동과 퇴출을 추진함
- ✓ 건설사업 시행자와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우수현장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역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지역건설산업의 범위에 '건설자재의 제조와 유통'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 적용 대상 건설업체의 소재지 등록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제안함
-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함
- ✔ 공공발주기관 내 및 행정청 내의 건설 관련 부서간 협업시스템과, 공공발주기관과 행정청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공사 행정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연계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발행인 \_ 권혁남    발행처 \_ 전북연구원

※ 이 정책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